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29.(금) 23:00
(지면) 2026. 5. 30.(토) 조간

지방선거 관외 사전투표지 이송 철통보안, 우편 이송 상황 현장점검

- 사전투표 첫째 날 야간, 서울중앙우체국 관외 사전투표지 이송 상황 확인
- 경찰관 동승 및 호송차량 동행 등 이송절차 전반 점검, 안전한 배송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금) 야간에 김민재 차관이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하여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가 담긴 관외 사전투표지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안전하게 배송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거일 당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5.29.~30.)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이 중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선거구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 해당 투표지는 개표를 위해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을 통해 이송된다.

>> 경찰 동승 및 호송 차량 동행으로 사전투표 신뢰성 대폭 강화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하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이 협력하여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하도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민재 차관은 서울중앙우체국 도착 후 우체국 시설 외곽의 경비 현황과 출입 통제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우편 운송차량에 경찰이 동승했는지 여부와 경찰 호송차량 운행 준비 상황 등 이송 절차 전반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루어지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김 차관은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해 관외 사전투표지를 이송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철저한 보안을 당부했다.

김민재 차관은 밤늦은 시각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노고를 격려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께서 믿고 투표하실 수 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사전투표 일정 마지막까지 국민의 소중한 투표지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책임자	과 장	이준식 (044-205-3371)
		담당자	주무관	이주희 (044-205-3387)

